

한국, 24년 만에 3위로 AG 마무리

1982 대회 금 28개 이후 36년 만에 금 50개 못 채워
2020 도쿄 올림픽 앞두고 기초종목 육성 등 과제



한국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을 종합 3위로 마무리했다.

16일간의 아시안게임 열전 마지막 날인 2일 한국은 대회 마지막 종목인 트라이애슬론 혼성 릴레이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로써 한국의 이번 대회 성적표는 금 49개, 은 58개, 동 70개가 됐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성적은 당초 개막 전 세운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친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65개를 따서 6회 연속 종합 2위를 달성한다는 목표

를 세웠다. 대회 초반 메달 전선에 이상기류가 감지되자 금메달 50개로 목표를 낮춰 잡았으나 그마저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하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50개를 못 채운 것은 1982 뉴델리 아시안게임 이후 36년 만이다. 당시 금메달 28개로 중국,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던 우리나라는 이후 1986 서울 대회에서 9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며 금 개수를 3배 이상 대폭 늘렸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2위 자리를 내준 것도 24년 만이다.

한국은 일본에서 열린 1994 히로시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차이(일본 64개, 한국 63개)로 3위로 내려선 이후 2위 자리를 지켜왔지만 이번엔 지키지 못했다. 목표에 못 미친 우리나라의 부

진과 기대를 뛰어넘은 일본의 선전이 맞물린 결과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메달 발이던 태권도, 양궁 등 강세 종목에서 목표를 채우지 못하며 아시아의 실력 평준화를 절감했다.

기초 종목은 여전히 부실해 육상과 수영에 걸린 각각 48개, 41개의 금메달 중 하나씩을 가져오는 데 그쳤다. 더이상 일부 '효자종목'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기초종목 경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됨을 절실하게 깨닫게 한 대회였다.

반면 2020 도쿄 올림픽에 사활을 걸고 준비하는 일본은 육상(금 6개)과 수영(금19개)은 물론 남녀 하키 등 이전에 한 번도 금메달을 얻지 못하던 종목에서까지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번 대회 성적을 발판 삼아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는 한국 선수단으로서 는 남은 2년을 어떻게 보낼지가 매우 중요해졌다.

연합뉴스

제주토종 이지훈 AG 근대5종 은메달

막판 뒤집기 성공… 1위 전운태와 13점차
남녀 양궁·수영·레슬링 등 메달 8개 획득

제주 근대5종의 대표주자인 '제주토종' 이지훈(제주도청·사진)이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이지훈은 지난 1일 인도네시아 반텐즈 탕그랑의 APM 스파센터에서 열린 남자 개인전에서 1459점으로 전운태(광주시청·1472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지훈은 첫 종목인 수영에서 1분59초25를 기록하며 4위로 312점을 획득했다. 이어 두번째 종목인 펜싱에서 18승(2위)을 따내며 승점 1점을 추가, 중간 합계 2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스마에서 9위로 뒤처진 이지훈은 전체 순위도 5위로 밀리며 메달권 밖으로 벗어나는 해 됐다.

그러나 이지훈의 진가는 막판에 빛났다. 마지막 종목인 레이저전(사격, 육상, 복합)에서 극적인 뒤집기에 성공했다. 역주 끝에 10분56초40으로 644점을 획득한 이지훈은 2위 일본의 오노 토모유

키를 끌어내리며 그 자리를 꿰찼다.

귀일중 2학년 때 근대5종에 입문한 이지훈은 제주사대부고와 한국체대를 거치면서 한국 근대5종의 간판으로 성장했다.

제주출신 임선주도 여자축구에서 지난 대회에 이어 동메달을 따냈다. 제주 소속 및 제주연고 팀 선수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문재권(서귀포시청)이 수영 혼성 혼계형 400m에서 동메달을 함작했다.

앞서 김형주(제주도청)도 여자 자유형 50kg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제주에 첫 메달 소식을 전했다.

제주를 연고한 현대제철과 현대백화점 소속 남녀 양궁팀의 활약도 눈부셨다. 2012 런던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이자 남자 양궁 대표팀의 '만형'인 오진혁이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적중했다. 김종호·최용화·홍성호는 남자 단체전 컴파운드에서 '금빛 과녁'을



명중시켰다. 김종호는 혼성 컴파운드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K리그1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정태욱도 한국 U-23 축구대표팀의 일원으로 금메달 획득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

이로써 제주 출신, 소속, 그리고 연고팀 선수 18명이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모두 8개(금 2·은 3·동 3)의 메달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금빛 김학범호 '황의 전성시대' 예고

인맥축구 논란 이겨내고
아시안게임 2연패 달성
황 트리오 A대표팀 포함

'황'으로 시작해서 '황'으로 끝났다.

출범 직전부터 황당한 '인맥축구 논란'에 휩싸이며 마음고생 끝에 출발한 김학범호가 마침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대회 2연패와 더불어 역대 최다우승(5회)까지 작성하며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됐다.

한국 U-23 축구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김학범 감독이 지난 7월 16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나설 20명의 최종명단을 발표하자 축구팬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김 감독의 선택을 '인맥 축구'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인맥축구'라는 비난에도 김 감독은 꾀웃하게 버텼다. 그리고 그 선택은 최상의 결단이었다.

황의조는 두 차례 헤트릭을 포함해 7경기에 출전, 무려 9골을 몰아치며 득점왕에 오르면서 대표팀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김학범호에는 황의조 말고도 황씨가 많다. 일본과 결승전에서 헤딩 결승골을 뽑아낸 황희찬(함부르크)을 비롯해 공격형 미드필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맹활약한 '현신의 아이군' 황인범(아산 무궁화), 중앙수비의 한축을 담당한 황현수(서울)까지 4명이나 된다. 황희찬은 바레인전 프리킥 득점을



지난 1일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하고 우승을 차지한 U-23 대표선수들이 김학범 감독을 행개려 치고 있다.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 페널티킥 결승골을 비롯해 일본과 결승전 헤딩 결승골까지 기록했다.

또 황인범은 이란과 16강전과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에서 각각 황의조에게 도움을 줘서 팀 승리의 밑바탕을 깔아줬다. 황인범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공격 전개의 시발점과 더불어 상대 압박수비의 최전선에서 투혼을 불태웠다.

황현수는 바레인과 1차전에서 아쉬운 수비 장면을 연출했지만 포백의 일원으로 든든히 김학범호의 뒷문을 지켰다.

한편, 김학범호에서 맹활약한 황의조, 황희찬, 황인범의 '황 트리오'는 오는 3일부터 훈련을 시작하는 A대표팀 명단에도 함께 포함돼 U-23 대표팀을 떠나 '벤투호'에서도 '황의 돌풍'을 이어갈 데세다.

연합뉴스



파도를 가르며 2일 제주시 애월읍 곡지해수욕장에서 열린 제17회 2018 제주오픈 전국생활체육 윈드서핑대회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다저스, 애리조나 꺾고 공동 1위 등극

캠프 8회말 극적 3점포로 3-2 역전승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이틀 연속 짜릿한 뒤집기를 연출하며 지구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다저스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서 0-2로 끌려가던 8회말 맷 캠프가 극적인 3점 홈런을 쏘아올려 3-2로 역전승했다.

애리조나와 4연전에서 먼저 2승을

쓸어담은 다저스는 74승 62패를 기록,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애리조나와 공동 1위로 올라섰다.

이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4-2로 물리친 콜로라도 로키스는 반게임 차 뒤진 3위다.

신발 커쇼는 70이닝 동안 삼진 3개를 곁들이며 4안타 2실점으로 막았고 8회초 등판한 마데야 겐타는 1이닝을 삼자범퇴로 처리해 승리투수가 됐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다큐 공감(재) 11:50 한식의 마음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차돌배 부인의 사랑 9:40 그날들의 여유만만 10:40 자구촌 뉴스 11:00 러블리 호라블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비밀과 거짓말(재) 8:30 생방송 TV 전국시대 9:30 930 MBC뉴스 9:45 기분좋은날 10:50 사생결단 로맨스(재) 11:25 사생결단 로맨스(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30 모닝와이드 2부 7:2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나도 엄마야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00 푸르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띠띠뽀 띠띠뽀 8:00 덩동댕 유치원 1 9:30 나는 비트몬스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2:00 EBS 정오뉴스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5:25 그림그리워, 루이 16:15 똑똑맨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 19:00 몬토코 21:50 EBS 다큐프리임 22:45 부모성적표
12:00 KBS 뉴스 12 13:00 네트워킹기획 문화선재 13:50 2017 KBS제주 시청자 음악회 14:40 2017 KBS제주 시청자 음악회 15:30 화산도 식물이야기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5 17:30 제주가 보인다	13:10 트레킹로드 세상을 걷다 14:00 KBS 뉴스타임 14:10 영화가 좋다 15:00 자동차공부생 위키 2 15:30 자구촌 뉴스 16:00 그날들의 여유만만(재) 17:00 살맛나는 남자들(재)	12:00 12 MBC 뉴스 12:20 최정우를 만국유림기 13:15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14:10 MBC 스포츠 2018 청원세계시각전수권대회 15:20 사이니스터 15: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16:20 비밀과 거짓말(재) 17:00 5 MBC뉴스 17:10 방송의 날 특집 시청자가 주인이다	12:00 SBS 12뉴스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50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재) 14:00 뉴스브리핑 15:00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17:00 SBS 오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임미현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낮종합뉴스 12:1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K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30 시사저기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4:00 한웅재의 CCM 캠프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KBS 뉴스 7 제주 19:35 우리말 겨루기 20:25 내일도 맑음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3:00 KBS 뉴스라인 23:40 제45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작 순례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골짜기 사랑 20:40 클로빌24 20:55 제보자들 22:00 러블리 호라블리 22:35 러블리 호라블리 23:10 안녕하세요	18:15 방송의 날 특집 시청자가 주인이다 19:15 비밀과 거짓말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제주어 전승 프로젝트 속임수다 22:00 사생결단 로맨스 22:35 사생결단 로맨스 23:10 방송의 날 특집 MBC 스페셜	18:00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재) 19:00 클래! NOW 제주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22:00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22:35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23:10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1부 23:50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2부	KCTV 7:00 KCTV 뉴스 9:30 인사이드 제주 10:00 KCTV 다큐스페셜 12:00 스포츠당구 더 레슨 12:50 파워워킹 10분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7:00 KCTV 뉴스 17:40 꼬마농부 꼬비 시즌1 18:00 다문화 시트콤 하이퐁 새가족 19:00 KCTV 7 21:30 KCTV 종합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3일		 김충상 지단(현)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작은 이익을 보려다가 큰일에 손해를 보니 신중해야. 48년 변화를 주고 싶고 구매충동이 강한 날. 60년 참고 인내하면 구하고자 하는 것이 풀려나간다. 72년 경쟁자로 인하여 피곤. 전문직은 인정받고 일이 많아진다. 84년 경솔하게 행동하면 상사나 동료의 마음을 사게 되니 행동을 조심하게 하라.	 42년 상대방을 너무 이해하려다가 역효과가 생기니 동정하지 말자. 54년 친구 또는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진다. 66년 마음 먹은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게 좋다. 78년 자존심이나 자만은 집에 두고 일터로 향하라. 90년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	
 37년 몸이 분주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이익도 있다. 49년 금전거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라. 61년 문서, 계약등 일이 있다. 집매매, 창업이 유리하다. 73년 먼저 이익을 생각하기 이전에 정직함이 우선시하는가 판단. 85년 현실이 어려워도 실력만이 너를 인정하니 자격증, 면허가 절실하다.	 43년 재물이 들어와도 지출될 곳이 많고 구입할 것도 많다. 55년 당장의 결과보다 전론 인적자원 활용이 중요하니 평생교육원을 통한 정보활용. 67년 웃음이 오는 행운이니 만인을 향해 웃어라. 79년 정보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라. 평생교육현장도 접근할 것. 91년 기쁨이나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	
 38년 위장에 무리가 오니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섭취해야. 50년 부업 또는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무슨 일이든 하려는 욕망이 강하다. 62년 남의 말에 동요되면 실속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힌다. 74년 직장, 이성관계는 순조롭고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만라라. 86년 한가지 일에 몰두하기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44년 주유업, 약제사리 완구업중은 몸이 분주하고 늦게까지 일이 있다. 56년 경제적으로 지출이 생기고 모임도 많아진다. 68년 이웃과 봉사할 일이 생기거나 기쁨을 주려고 한다. 80년 스스로 일을 만들어 가는 날이니 실패는 걸음마로 삼라. 92년 화식이나 밥집에서 즐거운 것을 다시 맛갈 것이다.	
 39년 혈암이나 기온에 민감하니 외출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 51년 이사 이동이 생기고 새로운 창출을 원하게 된다. 63년 단체나 모임에 참석을 하게되나 운전은 급물, 안전사고 유의. 75년 부부간 언쟁이나 불화가 오니 먼저 큰소리를 내지 말것. 87년 과거의 추억이 나를 다시 건강하게 한다.	 45년 애섯사람과 대화시 차한잔의 여유도 나를 존경하게 한다. 57년 도움이 있거나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긴다. 69년 여행을 주도하는 일이거나 실내 장식업은 고객에 맞춘다. 81년 이성교제 또는 주위에서 소개가 생기나 내 자신은 준비가 부족하다. 93년 하는일에 변동이 오거나 정리하라고 한다.	
 40년 사람을 포용하는 너그러움이 존경에 대상이 되니 여유있는 웃음이 좋은날. 52년 자녀와 상의하면 일이 순조롭다. 64년 배려하는 마음이 크고 봉사심이 강하다. 76년 부지런함이 수익으로 다가오니 대인관계 폭을 넓혀라. 88년 활동이 강하고 모임이 생긴다. 붉은계통 행운이며 너무 늦지 말것.	 46년 소송 관제구설이 따르니 약속이행 철저. 58년 자영업자 문서이동 이사 등의 일이 생긴다. 행운방향을 서북간 길. 70년 목마름에 갈증하던 차에 친구 또는 주변의 협조로 기쁨이 찾아온다. 82년 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만 집중하라. 결과가 좋아진다. 94년 사비 구설이 오니 앞장서는 일은 신중하게.	
 41년 약속을 잘 이행하고 신용을 중시하라. 53년 문서로 인한 기쁨이 있으나 가정에서는 불화, 근심수가 있다. 65년 재주가 많아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적을수 있으니 대인관계가 관건. 77년 규칙적인 생활이 나의 정신, 육체건강을 좋게 한다. 89년 의류, 패션, 약제사리업 수익 호전. 직장인은 청진받는다.	 47년 변화가 필요하면서도 막상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 한다. 59년 가정에서는 사소한 문제로 불화하나 바깥에서는 활동영역이 넓다. 71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 83년 직장인은 원시함과 논쟁하지 말 것. 자영업은 이윤 증대, 기쁨이 생긴다. 95년 몸도 마음도 허전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